



10월 12일(주일) 안동 탈춤 공연장에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동 교구대회 발대식 및 청소년 축제가 있었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은 발대식과 발대미사에서 전례봉사자로 참여하였습니다.

성경책을 봉헌하고, 제대 옆에서 복사를 서고, 보편지향기도를 바치는 등 미사 전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예비신학생들의 모습을 통해 하느님을 닮고자 했던 '성 카를로 아퀴티스'가 떠오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예비신학생들을 위해 기도 중에 기억해 주세요.

영명축일 축하합니다!

- 11월 10일 레오
예비신학생 - 김영성 (모전동, 중2)
- 11월 11일 마르티노
예비신학생 - 홍예준 (영양, 중3)
- 11월 30일 안드레아
예비신학생 - 최준호 (강구, 고1)

결혼도 '성사'예요?

우리 천주교에서는 결혼을 '성사'로 생각하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천주교에서는 결혼할 때 하느님 앞에서 부부가 되겠다고 서약하는 예식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결혼은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의 약속으로 결정되지만, 함께 지내다보면 그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동안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일은 쉽지 않겠지요.

이때 하느님을 두 사람의 결혼 증인으로 기억한다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이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생각하면, 한결같은 하느님이 두 사람의 혼인을 지켜 주신다는 사실은 정말 고마운 일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천주교에서는 모든 신앙인들이 더욱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해 나가도록 혼인성사를 마련했어요.

이렇게 혼인성사는 한 쌍의 남녀가 하느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서 자유로운 마음으로 사랑과 존경, 신의를 지키기로 계약하는 성사입니다. 만일 결혼 당사자 가운데 한 사람만 천주교 신자일 경우에도 결혼 당사자들의 약속을 받고 관면(면제)을 통해 혼인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어요.

우리 예비생 친구들은 신부님이 되려고 준비하고 있지요? 그런데 혹시나 나중에 생각이 바뀌어서 신부님이 안 되고 결혼을 하게 된다면, 결혼하기 전에 반드시 성당에 가서 신부님과 만나 혼인성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꼭 설명을 듣고 실행해야 해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을 잘 준비할 수 있을 거예요.

기억해요!

1. 예비신학생 11월 모임 (신학생과 함께하는 성소 콘서트)

- 일 시 : 11월 16일(주일) 14:00 - 17:00
- 장 소 : 교구청
- 대 상 : 예비신학생, 부모님, 사제성소에 관심있는 학생



2025년 11월

예비신학생 편지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안동 교구대회 발대식>



천주교안동교구 사목국 성소담당

https://www.instagram.com/andongcatholic_
안동교구 예비신학생 인스타그램

예신생과 나누는 'Joungul'

- 눈 뜨는 순간 성찰과 기도는 뇌(腦)에게 주는 가장 건강한 첫 식사 -

예신생 친구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요? 메시지 확인? 유튜브 보기?

아침의 뇌는 잠자는 동안 쌓였던 생각이 정리되고 깨갠 곳이 비워진 상태이기에, 어떤 생각을 먼저 채워 넣느냐가 하루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해요. 마치 깨갠 곳이 비워진 도화지와 같은 거지요.

일어나서 "메시지 하나 확인하는 게 뭐 그리 문제일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메시지를 여는 순간, 보낸 사람과 얽힌 여러 가지 일들이 막 밀려와요. 마치 고요한 호수에 돌이 떨어지면 잔물결이 사방으로 번져 가듯이.

그렇다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먼저 해야 할까? 기도해보세요. 어렵고 복잡한 기도법을 따로 배울 필요는 없어요. 수도자들은 매일 새벽 묵상으로 성경 말씀을 천천히 읽지요. 예를 들어,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 제물이 아니라 자비다."(마태 12,7) 한 단어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숨을 들이마시며 '자비', 내쉬며 '자비'라고 마음속으로 읽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말씀은 오늘 내 삶을 움직이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무엇을 건네줄 수 있는지 선택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이 답은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단 5분의 선택이 새로운 나를 만들어간답니다.

신학생으로부터~



저는 부제품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은 죽음과 삶의 의미를 자주 묵상하게 돼요. 사람으로서의 한계와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하느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와 희망이 있다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기도 매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어머니를 일찍 하늘 나라로 떠나보냈다고 해요. 처음엔 너무 힘들고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위령성월이 되면 묘지를 찾아가 묵주기도를 바치며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어머니가 주님 품에서 평안히 쉬고 계신다는 걸 믿게 되고, 그게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라고 고백했어요. 단순한 말이지만, 그 안에 신앙의 깊은 힘이 담겨 있었어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작은 기도와 희생은 돌아가신 분들에게 큰 힘이 되고, 동시에 우리 자신에게도 희망을 심어 줘요.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또 혼자 있을 때 드리는 기도가 모두 사랑의 표현이 되는 거예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하느님 안에서 새로운 시작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희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랑하는 예비신학생 여러분, 위령성월을 지내면서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 보세요. 그 기도 안에서 하느님이 주시는 평화와 희망을 더 깊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길을 준비하며 여러분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캠프 때 만나요~

난 도 리 - 백종현 페르디난도

